

부활절 맞은 성도들의 항변속'부활절 메시지' "수칙 잘 지키는 교회가 더 안전"



▲ 서울 00교회에서 열린 온라인 부활절 예배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신도들만 참석해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사태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그 동안 현장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다. 교회들은 부디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전염병이 물러가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교회와 사회, 또 온 세계를 치유하길 염원하고 있다. 또 4.15 총선이 눈 앞에 다가온 만큼, 그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래 대표적 연합기관인 한기총과 대신교단의 부활절 메시지 주요 내용을 옮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으며 큰 환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15 총선에 각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느냐 하

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총선에 대한 위기감과 심각한 각성이 없는 한 자유 대한민국은 국민의 신앙과 자유가 억압되는 사상 초유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완전한 패배요, 절망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안에 깊숙하게 내재 되어 있던 쓴 뿌리들이 사라지고 거룩하지 못했던 결가지들이 제거되는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12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

는 부활절로 기독교계의 최대 행사다. 이에 따라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던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6400여개 교회 중 2100여곳이 현장 예배를 벌였고, 최전선 대구에서도 1377개 교회 중 363개 교회가 집합 예배를 개최했다. 교회의 경우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정부에서도 종교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교회는 '부활절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등 대형 교회들은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중소형 교회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 어렵고 장소도 좁다. 또한 예배의 회복은 영적인 문제로 가장 시급을 따지는 현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교회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는 입장도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에 다니는 A씨(37·여)는 “우리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는 다르다”며 “그간 일부 사이비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뿐 아직까지 집단감염이 일어난 교회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최근에는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단속도 나오고 교회에서 방역대책도 잘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 교회는 시의 안내에 따라 W형으로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경우, 교회에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하면서 현장 예배 시 7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7대 수칙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소소독제 비치 △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이다.

또 다른 교인 B씨(55)는 “식당, 술집, 카페 등은 이런 수칙도 없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한 뒤 “오히려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가 더 안전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문화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 C씨(62·여)는 “현장 예배 시간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찬송가도 많이 부르지 않는다”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식사 제공이 금지되면서 교인들이 도맡았던 ‘식사 봉사’도 없어졌다”며 “교인들의 피로감도 줄어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교회 문화가 정착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영철기자

부활절 메시지

대신총회장 강대석목사



강대석 목사
대신총회장, 청운교회 담임

1885년 4월 5일 한국을 방문한 아펜젤러 선교사는 대한민국 땅을 밟으며 “우리는 부활절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의 빛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얻어낸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여 년 전 그 어디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뿐인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진 이 한마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고백대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기적과도 같은 전대미문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은 부활의 산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는 그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안팎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의료진과 관계부서가 불철주야 헌신하고, 많은 이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패배요, 절망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반드시 이 모든 것

들은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안에 깊숙하게 내재 되어 있던 쓴 뿌리들이 사라지고 거룩하지 못했던 결가지들이 제거되는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아펜젤러 선교사는 희망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산 소망과 희망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적을 가져왔듯이, 코로나19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위기가 아니라 무너질 뻔했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회개하게 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주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도래할 것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게 되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사실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의 삶 속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 것을 말씀해줍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경험되시길 것입니다.

강대석 목사 총회장, 청운교회

Contents	2 교단소식	3-5 교계소식	6 신학산책	7-8 신앙과 삶
----------	--------	----------	--------	-----------

안양대학교 2020 여성 지도자 과정

여전도사 지망자, 교역자 사모 그리고 신학을 배우기 원하는 여자 성도들을 위한 과정으로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바른 신학과 경건한 삶을 구비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지원자격]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자
- 2) 세례 후 2년이 경과된 자

[학제 및 수업]

- 1) 학제 : 2년(4학기)
- 2) 기간 : 12주
- 3) 수업 : 매주 월요일 오전 9:00-오후6:00
- 4) 학기당 50만원 (장학금 50% 지원)



△ 모집기간 : 5월7일 까지

△ 학기기간 : 5월 11일부터 7월 13일 까지

△ 특전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전도사 고시 자격 줌,
전도사고시 합격 후 총회 산하교회전도사로 추천

<http://www.anyang.ac.kr>

△ 개설과목 (4학기 전제)

구 분	신학전공과목	실천신학과목
1 학년	1학기 기독교교리학 I 구약총론	교회사역의 실제 교회학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
	2학기 기독교교리학 II 신약총론	설교의 이론과 실제 전도의 이론과 실제
2 학년	1학기 종교개혁사 모세오경 사복음서	상담의 이론과 실제
	2학기 한국교회사 바울서신	심방의 이론과 실제 청·장년부 교육의 이론과 실제

대구.경북 지역 재난 특별 선교지원금 긴급 전달

열매교회(이예석 목사, 총회부서기)에서 총회와 청운교회가 마련한 특별 선교지원금 전달

총회장 강대석 목사, "계속적으로 방역용품 및 선교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대구와 경북 노회 중심으로 지역 교회들을 돕겠다."



▲ 4월 6일 총회본부에서 부서기 이예석 목사에게 재난 특별지원금을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대신총회가(총회장 강대석 목사)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7일(화) 오전 11시 경북 열매교회(담임 : 이예석 목사)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대 확산으로 큰 피해를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교회 목회자 초청해 총회와 청운교회가 마련한 특별 선교지원금 1,600

만원을 긴급 전달하였다.

먼저 4월 6일 총회본부에서 부서기 이예석 목사에게 재난 특별지원금을 전달식을 진행하였다.(사진) 전달식에 앞서 드러진 예배에서 총회장 강대석 목사는 "3세기 로마제국 당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돌보았다. 그래서 당시 신자들은 '파라볼라노이'로 불렸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란 뜻"이

라며 위기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구제했던 백부장과 넬로의 마음으로 이 곳에 왔다."면서 "더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통관 등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마련된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역용품 및 선교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대구와 경북 노회 중심으로 지역 교회들을 돕겠다."

고 밝혔다.

예배 후에 잠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이예석 목사로부터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의 애로 청취와 요구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서기 이예석 목사는 금번 코로나 19 바이러스 재앙에 대한 대구와 경북 지역 교회와 교회들에 대한 총회와 청운교회 지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극복하여 영광을 돌리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후에는 인근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정성껏 점심을 대접하였다.

한편 총회는 지금대상 선정기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산하, 대구 경북 지역, 현장 목회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를 선별하고 특히 어쩔 수 없이 교단 분열로 떨어져 있는 과거 대신의 형제교회를 기준으로 하였다. 고 밝혔다.

지금은 대구 경북지역, 현장 목회자를 중심으로 17개교회, 목사후보생 4명 총 21명에게 1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지급 받은 교회와 목사후보생은 증거자료를 총회에게 영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명칭사용하였다고 내용증명...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문

내 용 증 명

발신인: 경기도 과천시 둘무개길 48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유지재단

수신인: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 (송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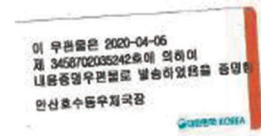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대표 강대석 (032-644-0153)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귀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와 상표(첨부로그)는 본 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입니다. 위 상표와 명칭을 본 법인의 허락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선전 광고물, 신문이나 출판물에 표시하거나 교육기관, 단체의 명칭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명칭을 사용하여 2020년 3월 30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적 목적에 사용한 바, 이에 대한 사과문을 국내 기독교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6일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유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 강대석목사)는 4월 5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내용증명(위 사진)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와 상표(첨부로그) 사용금지

귀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와 상표(첨부로그)는 본 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입니다. 위 상표와 명칭을 본 법인의 허락 없이 인터넷홈페이지, 선전 광고물, 신문이나 출판물에 표시하거나 교육기관, 단체의 명칭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명칭을 사용하여 2020년 3월30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적 목적에 사용한 바 이에 대한 사과문을 국내 기독교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대신교회협동신문 첨부로그는 불사용 결정

대신교회협동신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재단법인이 요구한 첨부로그는 불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대신교회협동신문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신교회협동신문은 첨부로그 없이 신문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특정 정당 지지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명칭사용 사과 헌법에 보장된 자연스러운 예배까지 정부가 초동 대처를 못한 것을 신천지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협과 혐오스러운 발언들이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있으며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사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어느 누구하나, 어느 정당도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대변하거나 보호하려 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자유통일당만이 앞장서서 진리를 사수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악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한 정당인 것을 확인해서 대신복원총회가 뜻을 모아서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지지 성명을 하게 된 경우이다.

※ 위 내용을 전달하는 지지성명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받고 대승적 의미에서 사과문을 올린다.

※ 대신교회협동신문발송용지는 이미 첨부로그가 포함되어 인쇄되었기 때문에 소진시까지 사용하기로 하다.

총회 이모저모 - 임원회 소식 알림

4월 임원회 결정 공지



강대석 목사
대신총회장, 청운교회 담임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임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강대석목사)는 4월 임원회 결정하여 공지를 하였다.

△ 총회신학교 운영위원회

2020년 5월2일 개강 청교중앙교회 총회신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을 연기하는 중이며 현재 2020년 5월 2일 개강하기로 결정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회신학교 운영과 관계하여 총회 임원회는 임시운영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임시이사
△ 명예총회장, △ 총회장, △ 부총회장, △ 서기
연권회원
△ 총회신학위원장 △학장

△ 강도사교시

일정 2020년 4월20일 - 6월8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구 경북지역 교회와 특히 경북노회 사정을 고려하여 4월20일에서 6월8일로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다.

△ 노회구성

253노회 조직 범노회시 구성

2020년 춘계정기노회를 통하여 마무리하기로하며 특히 253노회 노회장을

통해 시찰회 구성하기로하다.

△ 타교단과의 관계개선 및 통합 통합추진 총회장단 위임

총회장단을 통하여 계속진행하기로하였다.

△ 대구경북 교회지원

총회 부서기이예석 목사통하여 대구경북지역 교회 목사후보생 1600만원 긴급 선교지원금 전달
청운교회(총회장강대석목사사무)에서 본총회 경북노회를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600만원을 부서기이예석목사(경북노회소속)에게 전달하였다.

△ 소속, 대표자, 재직,직인증명서 각종증명서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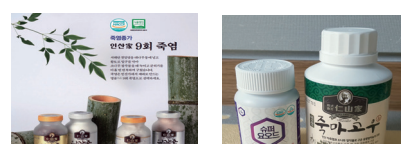
문의 010-2240-0581

△ 춘계노회 후 노회 조직 및 임원보고

코로나19 진정 이후 각 노회는 봄 정기노회를 마치고 노회 조직 및 임원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면역력-미네랄 | 코로나19 예방

☆코로나 19 매출급증☆



죽염 9회 고체 분말 5회

3회 죽마고우 원장 고추장 죽염수 히트상품

© 연연堂



인산의학 월간지

구독신청서 무료보내드립니다.



☆ 목회자 특별할인혜택 ☆

대신교회협동신문

발행인 강대석 대표 최종환 주필 박근상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편집국장 강영철 광고국장 김용백 영업국장 이창복 인쇄인 이병동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반기독교세력대응 경인연대, 「목회와 정치」 포럼 개최

안병도 전 연세대 겸임교수, ‘헌 정부의 정체성’ 강의
심창섭 전 총신 교수, ‘정교분리와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강의
고영일 변호사,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어떻게’ 강의



▲ 목회와 정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반기독교세력대응 경인연대(대표회장 : 이성화 목사)가 4월 9일 오후 부천시문교회에서 「목회와 정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무총장 박윤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서기원 목사가 기도한 후 예장 개혁 직전 총회장인 박만수 목사가 출 34장6-7절을 본문으로 '자손 천대 복받는 나라'란 제목으로 "개인적으로는 누릴 것을 다 누려 지금 당장 주님 품에 안겨도 전혀 불만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로 이 나라를 물려 주고 싶어 국가 위기상황인 지금 이것을 알고 힘을 합치기 위해 전국을 돌고 있다."말씀을 전한 후 대표회장 이성화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포럼에서는 안병도 전 연세대 겸임교수가 '헌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심창섭 전 총신대학원 교수가 '정교분리와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 고영일 법무법인 추아가를했살 대표변호사가 '기독교인의 정치 참

여 어떻게'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안병도 전 연세대 겸임교수는 '헌 정부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상해, 또는 한성 임시정부의 성격 규정에 따른 건국기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15일까지의 해방 직후에 대한 우파와 좌파의 인식 차이와 이승만이 주도한 유엔이 인정한 남한의 합법적 정부 수립 과정과 소련 군정을 등에 업은 김일성에 의해 북한에 정권이 세워지는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느쪽이 정통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좌파의 독선에 따른 우파의 위기와 4월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으로 심창섭 전 총신대학원 교수는 '정교분리와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의 강의를 통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정신은 공개적이지 않고 암묵적이고 오히려 정의롭게 통치

하도록 기도함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치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로 설정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로마제국으로부터 받는 현실적인 압박 가운데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보았음을 강조했고, 세레 요한과 예수의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회 참여가 있었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참여를 긍정적으로 보았고, 그 예로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한 본 웨퍼를 모델로 제시했다." 질의 응답에서 심 전 교수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교회에 대해 혐의가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현장출석예배를 막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목회자가 정치가가 아닌 목회자로서 정치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의에 나선 고영일 변호사는 좌파는 포스트모더니즘, 이슬람 옹호, 페미니즘 등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국가와 가정을 교회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판단과 교회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회장 이성화 목사는 현재 한국 사회에 반기독교 세력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도 고소당한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매우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지는 목회와 정치를 연재하여 기고할 예정이다. 김용백기자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5차 담화문 「현장에배로 회복 되어야 합니다!」 예장 합동 총회, 41일만에 현장출석예배 재개 선언

총회장 김종준 목사 5차 담화문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 김종준 목사)가 코로나 19 사태로 지난 2월 28일 각 교회 당회의 결정으로 주일예배를 포함한 공적 예배를 온라인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 지 41일 만에 현장출석예배 재개를 선언했다. 전국교회와 성도들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적인 비상상황이 2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회시설 이용 중단과 공예배를 온라인 및 가정예배로 대체하는 등 그 어떤 곳보다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상적 상황에서 지혜로운 대처와 성숙한 의식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19가 국경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의 회복과 동시에 교회의 현장 예배 정상화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무한정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에 눌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대구의 방역당국도 이제부터 방역체계를 관(官) 주도에서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 전반이 코로나 19의 장기국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도 4월 12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현장예배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1. 교회와 예배의 본질 회복에 집중해 주십시오.

코로나 19 상황의 온라인예배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는 신앙 실천 차원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영상예배는 예배신학적 측면에서 임시적이며 보충적 조치입니다. 영상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의 의미와 본질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본질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가치와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 표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비상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상예배는 예배다운 예배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예배에서 설교가 끝나면 접속을 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실황을 시청하는 것이지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모여야 교회인 것입니다.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4월 12일)을 기점으로 예배당에 모이는 현장예배를 재개하여 교회의 중요성과 예배의 가치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에 노력해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에 경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뤄지도록 합시다.

2. 현장예배 재개에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현장예배 재개에 앞서 영유아, 기저질환자,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 병행,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차원의 예배 횟수 증설 등, '예배 회복'과 '감염 방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코로나 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의 현장예배 재개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예배 재개를 앞두고 사회가 요구하는 '감염예방을 위한 7대 원칙'을 능가하는 고도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보건상의 방역'을 넘어 '심리적 방역'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역시 교회의 책무입니다. 코로나 19의 완전 종식까지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큰 공동식사, 교회 내 카페, 공예배 외의 집단이 모이는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신천지 집단처럼 바이러스 전파지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공포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소망과 기쁨으로 역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교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0. 4. 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기고]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인가



소강석목사
세예교회 담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은 지역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전환이다. 언택트(untact·비접촉)사회가 도래하고 공동체성이 해체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문화로 바뀌며 글로벌한 사회에서 성곽 문화로 변형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을 인체의 한 부분처럼 활용하는 인간)' 시대가 급속도로 확장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가져다준 교회 환경의 변화다. 과거에는 시대나 사회 문화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변화했다. 그 결과 교회 이탈자 증가, 세신자 감소, 재정적 감소로 인해

교회에 극심한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21세기교회성장연구소 김두현 박사는 "오는 9~10월이 되면 소형교회는 물론 중·대형교회를 포함해 30% 안팎의 교회가 극심한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상황인데도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태만과 냉담, 방치의 습관이 체질화돼 가고 있다.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다 보니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각오가 너무 안이하고 태만하고 냉담한 사고로 굳어버렸다.

4·15총선의 결과로 진보사회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면 보수 성향의 교회들에는 생태계의 압박이 더 부정적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한국교회가 과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마저 생긴다.

교회론이 건강하고 예배의 신성함을 제대로 알았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할 수 있었겠는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두 달 가까이 지나니 이제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는 상황이다. 한국교회는 다시 교회를 세우는 운동(처치 플랜팅)을 해야

한다.

첫째, 순환계적 차원에서 교회세움을 해야 한다. 교회 본질을 이해시키는 교회론 교육을 강화하고 교회를 다시 주님의 몸으로 경험하게 해야 한다. 온라인예배에 익숙해 있던 성도들에게 예배의 신성함과 공동체성,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체험, 생명력 있는 설교를 맛보게 해야 한다.

둘째, 포지션 영역에서 교회세움을 해야 한다. 교회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올드처치에서 뉴처치로, 교회의 옷을 뉴 패션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제도적 교회에서 창조적 교회로, 개인주의적 교회에서 네트워크 교회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의 병행 구조로, 대면전도와 온라인 전도의 융합으로 뉴 포맷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실추됐을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고양하기 위해 교회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 교회 안에 메디컬처치나 코로나19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보건적·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법이다. 근시적 마을교회에서 유니버설, 킹덤처치로 선교의 상상력을 확대하고 일반 주변교회에서 핵심적 중심교회로 진입해야 한다.

셋째, 생태계적 차원에서 교회세움을 해야 한다. 성도들이 교회 생태계와 공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적 사역의 마인드를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올바르게 설정하고 교회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도 무조건 반정부집회만 하지 말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다음세대 차원에서의 교회 세움을 해야 한다. 신앙의 유산으로서의 다음세대, 교회 유산으로서의 교회 세대를 잘 훈련하고 신앙을 계승시켜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돼 버린 지금, 유튜브를 통한 2세대 전도의 활동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활성화된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교회 예배와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현장예배에 참석하도록 전도하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한국교회는 쇠락과 부흥의 갈림길에 설 것이다. 아니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신앙과 사상, 문화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비상한 각오와 경각심으로 대응해야 한다.

산학협력 협약서 서명

한국교회 봉사단 한국교회지원센터 대표 최종환, 송호대학교 총장 정창덕



▲ 송호대학교 한국교회지원센터 방역학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지원센터(대표 최종환)는 사회복지, 드론 등 다양한 선교플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6일(목) 오후2시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송호대학교에서 방역학과, 바리스타학과를 방문하여 목회자들이 목회사역 현장 가운데서 다양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신학교 교육과정에 이 콘텐츠를 접목하여 교육한 후 목회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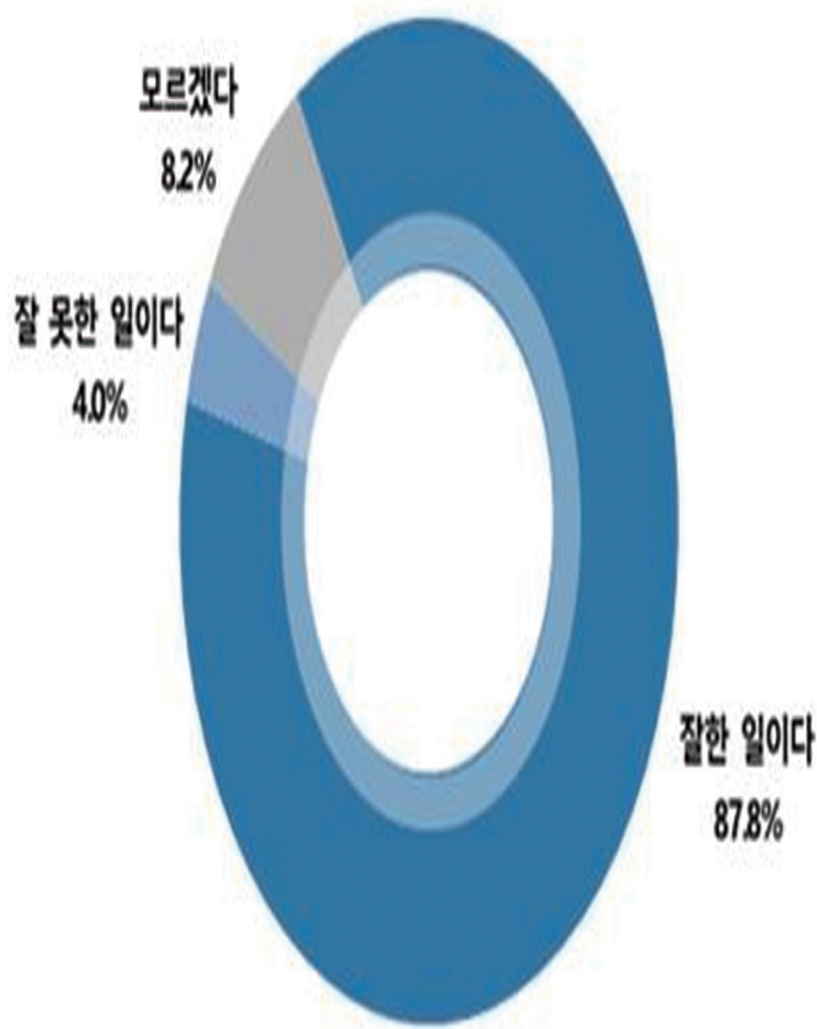
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지원센터 최종환 목사는 "한국교회의 장차 목회환경은 너무나도 척박하며 생존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한 후 대안으로 다양한 선교방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지원센터와 송호대학교 방역학과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역사회 및 교회 방역을 전담할 방역사를 총회신학교 교과과정에 수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연종기자

코로나19 이후 85.2%는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 예배 드린 교인 중 87.8% “교회 결정, 잘한 일”



온라인예배 응답자 중 87.8%는 온라인 예배 전환 등 교회 대처에 잘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장이 아닌 온라인이나 방송 등으로 예배를 드린 이들 10명 중 8~9명이 교회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지형은 목사)와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 지형은 목사)이 지앤컴리서치-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개신교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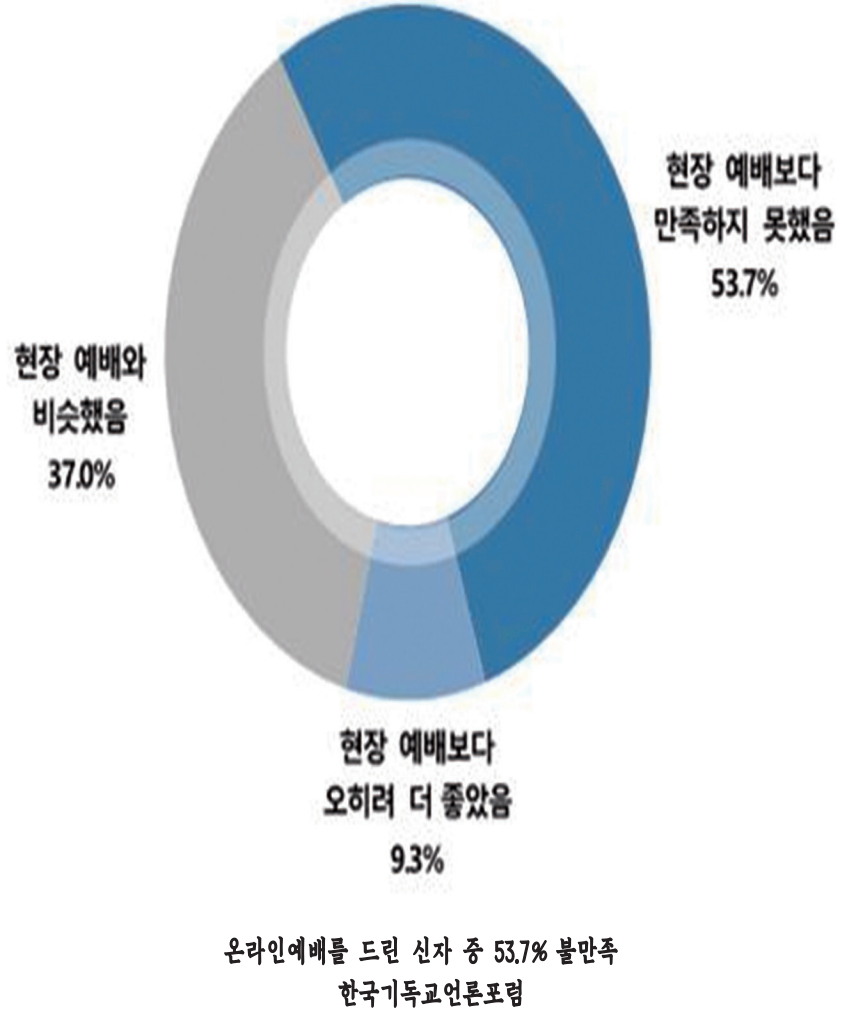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온라인·방송·가정예배를 드리는 신자 중 83.2%가 한국교회가 공적 사회문제에 동참해서 뿌듯하다고 응답했고, 동일 응답자 중 87.8%는 교회 현장예배를 온라인 예배 등으로 전환한 교회 대응에 대해 ‘잘한 일’이

라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출석교회 중 61.1%는 온라인 예배, 24.2%는 현장예배, 7.4%는 예배 순서지로 배포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나머지 7.3%는 별도 순서지 없이 각자 알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신자 개인의 예배 방식에 대해선 52.2%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13.6%는 출석교회에서 현장예배를 드렸다고 답했다. 온라인 예배·현장 예배 둘 다 드리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13%나 됐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신자 중 53.7%는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50대 이상 장년층과 읍·면지역 거주자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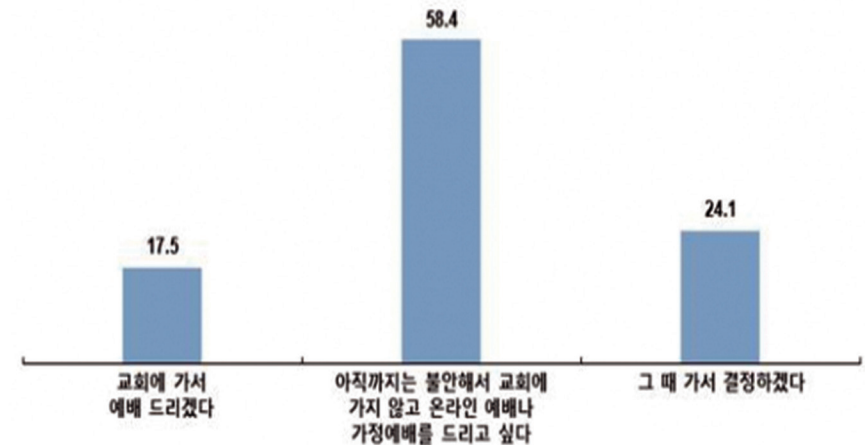
온라인예배를 드린 신자 중 53.7% 불만족
한국기독교언론포럼

현장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개신교인 중 87.8%가 현장예배 중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출석 교인수가 큰 교회 교인일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현장예배를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 중 69.4%는 현재 일부 교회들이 현장예배를 지속하는 것에 사회적 공익을 위해선 현장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12일 부활주일에는 다수 교회가 정부의 7가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회 현장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출석교회에서 부활절 현장예배를 드리면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던 신자 중 고작 17.5%만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58.4%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 24.1%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 중 58.4%는 부활절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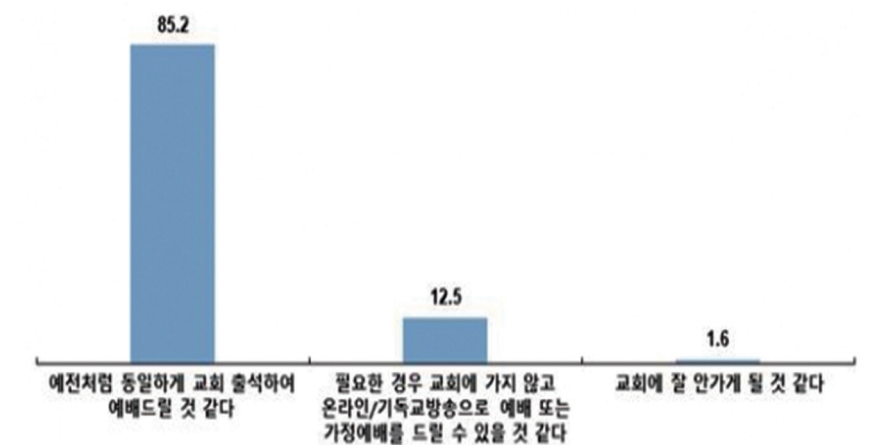
또 온라인·방송·가정예배를 드릴 때 현금내는 방식을 물었는데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응답자 중 33.6%는 계좌이체를 통해 헌금을 했다. 나머지 35.7%는 별도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교회예배가 정상화되면 교회 가서 낼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 28%는 모아놓지 않고 교회하면 헌금하겠다고 응답했다.

관계자는 “현장예배 중단기간이 늘어날수록 교회 재정상황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대형교회 보단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돕기 위해 교계는 다양한 모금활동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설문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는 얼마나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5

개 속성별로 긍정·부정을 선택하도록 질문했다. 그 결과 ‘교회방역과 감염예방 수칙 준수’는 67.9%, ‘교회예배·모임 자체’는 61.5%, ‘감염자 및 의료진, 사회적 약자, 자영업 피해자 등에 대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은 58.9%, ‘교회를 향한 사회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51.6% 등으로 조사됐다. 5개 항목이 대체로 50% 이상의 긍정률을 보였고 이 중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긍정률이 높았다.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교회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2%는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것으로 예상했다. 12.5%는 온라인·방송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85.2%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다시 교회에 출석해
현장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이번 상황을 지나면 개신교계는 교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응답자 중 66%는 이번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대답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4.3%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 속 신앙 실천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21.9%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21.4%는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관계자는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교회 안을 벗어나 교회

밖에서 삶과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상황을 맞아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한국교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사회학연구소,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포럼,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 한국기독교언론포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CBS, 사랑의교회, 새로나교회, 서대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등이 참여했다. ▶jebo@press.cdaily.co.kr

목회와 정치 포럼 제2강

해방과 분단, 그리고 대한민국

편집자주 - 목회와 정치포럼 안병도 전 연세대 겸임교수 ‘현 정부의 정체성’을 주제로



▲ 안병도 전연세대 겸임교수

1. 8월 15일,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1) 1945~1948년 대한민국 탄생을 위한 갈등과 분열의 복합적 시기 해방직후, 8.15(광복)직후, 미군정기 : 정치권력의 소재 분단시대
결과론적 해석 - 해방3년 : 해방의 결과물인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 건국기 :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시기 :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우위로 전제로운 명칭

2)임정정통성 건국설과 대한민국 정통

성 건국론의 대립 - 임정론자 주장 : 1919년 3월1일 건국설, 임정수립1919년 4월 11일 건국설 상해임정수립 4월 13일 건국설, 한성임정 수립 4월 23일 건국설, 상해 통합정부 9월 11일 건국설, 대한민국 정통성 건국론-임시정부의 불확실한 요건(주권국가의

3대요소: 영토 국민 주권->실효적 지배권) 5.10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 : 대한민국 국호제정, 임시정부는 건국을 위한 과정, 국민국가의 객관적 요건은 국제적 지위에 의해 관정됨, 대한민국은 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 : 국제적 정통성 확보 -> 5.1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국제적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법리상 반역집단.

2)임정정통성 건국설과 대한민국 정통

2. 주사파 친북좌파의 대한민국 부정 건국론

1) 주사파 친북좌파의 의도 - 주사파 친북좌파는 대한민국에 국제적 정통성을 부여한 48년 건국론을 인정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임정 건국설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법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 함. 그리고 45년~48년의 시기를 이미 수립된 국가의 정권수립 과정으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주체적 자주적 반외세력 정권, 대한민국 : 친미적 외세 의존적 반민족적(분단지향적) 정권으로 규정하려 함.

2) 결국 임정 정통성 건국론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주사파 친북좌파의 아전인수적 역사해석에 이용당하고 있음. 공산주의자 통일전술의 특징 : 폴란드 체코 등 동구권, 민족주의자 이용후 제거, 김일성 : 조만식등 초창기 재북 민족주의자 이용. 김구 김규식등 남한출신 민족주의자 이용. 김두봉, 허가이등 연안파 소련과 공산주의자 이용, 박헌영등 국내

파 공산주의자 이용, 이들은 이용후 모두 제거당함.

3. 주사파 친북좌파 논리의 진실

대한민국을 친미적, 외세 의존적, 반민족적(분단지향적)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김일성 정권이야말로 철저하게 친소적, 분단지향적 정권이었음.

1) 김일성의 친소적 성향 - 김일성은 철저하게 소련 24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에 의해 발굴되고 북한에 친소정권을 세우기 위한 대리인으로 길들여진 인물. - 김일성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배경,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 (카이로 알타 포츠담선언) ->한국독립에 관한 국제적 합의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조내각의 의지를 히로히토 천황이 찍음으로 결정.

2) 치스차코프 사령부의 간접지배 : 조선은 조선인의 것이다. - 김일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친소정권을 구축하고자 함.

3)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 1945년 11월 : 사법국등 10개 행정국 설립 사실상의 정부기구 설립 - 1946년 2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 중앙주권기관 설립 발기위원회, 2월5일 인민위원회 수립 의결, 2월 7일 정당사회단체 예비회의, 2월 8일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책 임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탄생 -> 사실상의 반쪽 정부 결성 - 단 1주일 사이에 사실상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치스차코프의 치밀한 조선 점령계획에 의한 소련주도적 과정 - 따라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그후 미소공위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하여 통일정부 구성의 해계모니를 장악하려는 소련의 한반도 정책의 결과.

4. 이승만과 대한민국

1) 이승만의 상징적 가치 - 이승만은 미국정부에 끊임 없이 소련의 한반도 적화야욕을 경고해 옴. - 이승만의 귀국 10월 16일 : 조선인민공화국 주석

한국민주당 영수직등 거절 -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결성 회장취임.

2) 이승만의 독립노선 - 소련의 의도 간파 - 미국지도부 설득하는 한편 국내 반공세력 연합체 구축 - 1945년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실패통치 결정후 미소공위 반대 - 46년 6월 3일 : 정읍발언 - 46년 12월 미국방문 미소공위 반대, 유엔에 의한 한반도문제 처리 설득 - 이승만의 예지력 (JAPAN INSIDE OUT) -> 한반도문제 유엔이관의 계기됨. - 기도로 응답을 간구함

3) 주사파 친북좌파의 목표
1)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2) 대한민국에 친북 좌파세력을 증식함 3) 좌파세력을 사회주의 혁명의 중심축으로 활용 4)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 5) 연방제 통일방안에 의한 사회주의 통일 6) 김씨왕조에 의한 한반도 전역의 지배

기고



윤대영목사
부천제일교회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이자 국교이다. 이스라엘은 자녀가 태어나면 남아일 경우 8일 만에 할례(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종교의식)를 하기도 한다. 자녀가 젖을 떼는 다음부터는 랍비를 통해 교육을 받게 한다. 주로 교육의 주제는 율법이다.

히브리 랍비의 교육은 주로 관계학을 가르친다. 이스라엘의 신(神) 야훼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이다. 어느 정도 자라면 기브츠라고 하는 공동체 교육을 시킨다. 이스라엘의 경전에 나

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금도 철저하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우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다. 먼저 스크린을 멀리한다. TV, 그리고 스마트폰을 모두 끈다. 식사를 나누면서 담소를 한다. 자녀와 부모, 형제와 자녀가 서로 소통을 충분히 한다. 부모님은 민족의 역사와 가정의 전통과 주로 신앙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히 민족 역사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종교 교육도 이루어진다.

혈통으로 자녀가 태어나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직업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자녀는 생리적으로 자녀만이 아니라 정신적 자녀, 부모의 자녀가 양육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인성은 세계적인 리더들을 길러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다. 그리고 금융, 과학, 예술, 산업 등에서 독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도 전통적으로 유, 불, 선 종교 교육이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 왔다. 특히 조선 500년은 유교의 가르침인 인간 관계

누구의 자녀를 키우는가?

학이 가정과 교육기관인 서당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삼강오륜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모두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원만하고 덕스럽게 이루는 교육이었다. 가정에서부터 충효(忠孝)를 가르쳤다. 예의를 소중히 여겼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까지 대가족의 가정은 질서와 가족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 했다. 자녀는 부모의 자녀였다.

그러나 정보사회로 들어서면서 핵가족에서 개인으로 변화하고, 모든 가치관의 정립이 개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 시작했다. 정보사회에서부터 여성이 사회 기여도가 넓어지면서 가정은 숙식(宿食)지로 변하고 교육은 학교 교실로 이관이 되었다. 부모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학교로 보내면 훌륭한 인성과 유능한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다. 학교교육의 비중이 커지자 강남구라는 특별한 지역도 생겨났고, 스카이 캐슬이라는 연속극이 공전에 히트를 했다. 시청자들이 공감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교실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교

사는 스스로 노동자로 자처하면서 전교조라는 조직도 만들어졌다. 심각한 문제인데도 학부모 즉, 가정은 그리 큰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학교 교실은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다. 그러나 교사가 자기가 선호하는 사상을 가르치거나 정치적 편향으로 사회주의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자주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외부로 제기한 바가 없었다.

그러다 며칠 전 서울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성향을 의식화했다고 해서 시위를 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오늘의 교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현 정부에서도 날치기로 사회주의적 역사 교과서를 출판한 사건이 있었다. 교과서가 정권을 잡는 정당에 따라 극명한 차이나는 역사를 가르치면 정상적 역사 인식도 불가능하고, 역사해석도 불가능하다. 역사해석은 역사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편향된 역사관으로 역사를 보면,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라도 외눈박이 이해를 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역사를 본다면 북한의 체제, 북한의 정치이념, 북한의 모든 사회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는 이 땅에 있어서 안될 국가체제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므로 말미암아 교실 안에서 나의 자녀가 북한의 인민이 되어버리고 만다.

교육의 장이란,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특정한 사회 체제를 주입시켜서는 안된다.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해 주고, 학생은 다양한 정보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인격으로 길러주어야 한다. 교실이란 좁은 공간이지만 그 좁은 공간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젊은이들이 자라고 있다. 나라의 미래이며, 부모들의 꿈이 자라고 있다. 세계를 넘어 우주까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과학적으로 살피며 보다 나은 세상을 창조의 목적으로 설계하는 인격을 길러야 한다. 성숙한 인격은 좌도, 우도 아울러야 하고, 중립이 아니라 합리적인 길을 모색

할 수 있는 인격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발견한 모든 원리나 이치나 사상이나 종교를 아우를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아야 글로벌 인재가 길러지는 것이다.

정부가 편협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을 하고, 소경처럼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볼 줄 모르는 자기 안에 갇힌 인간, 교사가 외눈박이가 되어 북한 사상 교화소와 같은 기관이 우리의 자녀가 교육받는 현재 교실이 되어 있다.

외눈박이 사회주의자가 나의 자녀를 외눈박이 사회주의자로 만들어서 교실에서 교사의 자녀가 되고 있다. 부모는 몸만 낳고, 키우고, 머리는 사회주의 외눈박이 교사가 지배하면 누구의 자녀인가? 이방인으로 착각하고, 내 자녀로 키우게 된다. 북한은 남침할 것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스스로 사회주의가 되어지고 있다.

윤대영 목사의 기고와 이주영 교수의 연재 이승만시대

[연재] 이승만시대 (6) 옥중에서 '독립정신'을 쓰다..자유 대한민국의 설계도

감옥에서 〈독립정신〉 원고를 완성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졌고, 그 소식은 감옥 안에도 들려왔다. 전쟁 소식에 이승만을 비롯한 감옥 안의 정치범들은 통곡을 했다. 이제 대한제국(大韓帝國)은 두 강대국 가운데서 이기는 쪽에 먹힐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이승만은 영한(英韓) 사전 원고를 쓰고 있었다. F 항목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몰려 있던 때라 이승만은 영한사전 원고를 쓸 기분이 아니었다. 유성준도 이승만에게 국민 대중을 위한 계몽서를 쓰도록 강력히 권유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영한사전 집필을 중단하고 〈독립정신〉을 쓰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원고는 감옥 생활 마지막 해인 1904년의 2월 19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급히 쓰여졌다. 러-일 전쟁중이었다. 감옥 안이라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체계를 갖춘 단행본을 쓰기 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52개의 주제들을 골라 논설 형식으로 썼다. 〈독립정신〉의 기본 주제는 조선왕국의 '독립 보존'이었다. 아직은 나

國強兵)을 가져다 줄 문명개화(文明開化)였다.

이 책에서 놀라게 되는 사실은 이승만이 19세기말 20세기초의 조선인으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서양문명의 본질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20대 이승만은 당시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었던 유길준(兪吉濬), 윤치호(尹致昊)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높은 지적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독립정신〉의 주제는 대한제국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에 토대를 둔 미국식의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군주제와 신분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그것의 폐지를 직접 주장하지 못하고, 미국의 제도를 길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열강의 침략으로 어려움에 빠진 조선 왕국을 폭풍우를 만난 배에 비유했다. 따라서 조선이라는 배가 가라 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집권층인 선원들과 백성인 선객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명개화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문명개화국의 모델은 미국

이승만은 문명개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근원이 되는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서'를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책에는 '자연법' '자연권'과 같은 낯선 단어들도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한 미국의 정치제도를 소개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의 마지막 부분인 인권 조항, 즉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당시에 미국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것은 조선의 군주제와 신분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민주정치를 전체 정치,입헌군주정치와 함께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에게는 입헌군주제가 적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극단의 위험을 피해가고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책의 전체 분위기로 볼 때, 그는 마음 속으로 이미 공화주의자(共和主義者)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그가 감옥을 나와 미국 유학을 떠날 때 민영환의 주선으로 고종 황제가 만남을 요청했을 때 거절했던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군주제는 없애야 될 악폐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승만은 조선의 집권층이 국제정세에 무지하고 겁이 많은, 따라서 자기 일신의 영달에만 관심을 가진 부패 무능 분자들로 보고 있다.

문명은종교와 관계가 있다

동시에 그들의 지배 이념인 유교가 공허하고 따라서 쓸모없는 이론임을 비

판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승만은 동시대의 다른 개화파 지식인들과 마



찬 가지로 "유교 망국론"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 대안으로 그는 한국인의 새로운 종교로 기독교(개신교)를 제시했다. 그 점에서 이승만은 오늘날 아놀드 토인비, 새뮤얼 헌팅턴으로 대변되는 문명사관 또는 문명충돌론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역사를 이해하는 기본 단위를 민족이나 국가 대신,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문명(文明)이나 문화(文化)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을 종교(宗教)로 보고 있었다. 그 점에서 기독교(개신교)는 한국인들이 문명개화하기 위한, 다시 말해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서양문명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그 근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부터 받아 들여야 했던 것이다.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임오군란과 동학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눈에는 어리석은 민중이 격정에 휘둘리어 폭동에 휘말림으로써 외국 군대를 끌어 들이는 빌미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국토를 초토화시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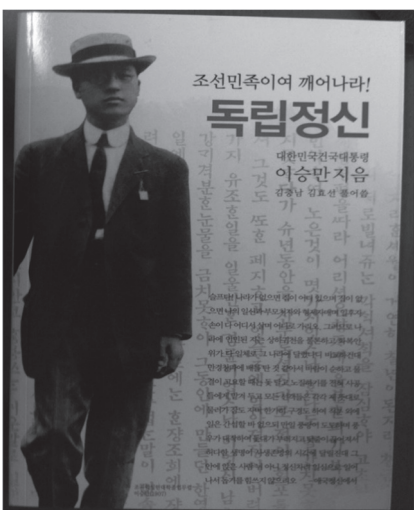
우매한 민중들의 맹목적인 외국인 배척 운동은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

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그의 시각을 통해서 볼 때, 당시 개화파 지식인들과 농민 대중 사이에는

매꿀 수 없는 넓은 간격이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무능하고 러시아는 사악**

〈독립정신〉에는 당시 한 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강대국들을 보는 눈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중

국(청)에 대해서는 가장 가혹하게 비판



하고 있다. 중국은 노쇠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도한 것으로 비치

특히 중국이 1882년의 임오군란으로부터 1894년의 청일전쟁에 이르는 12년 동안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킨 사실이 조선왕국의 개화를 가로 막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분개하고 있다. 원세개의 간섭 밑에서 조선왕국은 개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군대의 주둔과 중국 상인의 진출 때문에 조선 땅에 다른 외국 군대를 끌어 들이게 되고 외국 상인들이 한반도 깊숙이 들어와 활동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조선을 속국이라고 주장하다가도 곤란한 일이 생길 때는 자주독립국이라고 말을 바꾸는 겉

젠이 나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이 문명개화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중국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이었다. 러시아는 후진국이고 전체적일 뿐만 아니라 한 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을 가진 음흉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발 빠른 개화 의지, 그리고 강인한 인내심과 열정적인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계해야 할 나라로 불신하기도 했다. 역시 이승만의 최대 우호국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세계 각국이 고요성을 버리고 하나의 문명으로 통합해 발전하고 있는 추세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동맹(同盟)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약소국 대한제국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독립정신〉은 '세계화'와 '선진화'가 외쳐지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인을 위한 예언서, 또는 '문명개화'의 지침서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선구적인 업적이었다.

그 원고는 반년만에 완성되어 밖으로 몰래 빼내 보관되었다. 그러다가 먼저 감옥을 나온 박용만이 1905년에 여행용 트렁크 밑바닥에 숨겨 미국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1910년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정신》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미숙한 점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를 일생 동안 지배했던 정치사상의 기본 골격을 거의 모두 담았던 것이다.

이주영교수



▲ 이승만이 1904년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 표지. 191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칼럼

메르스 사건을 통해 보는 것



(김성원 목사)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소장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인간의 근원적 대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

한국에서의 메르스 사태는 미래 지구촌에서 일어날 일련의 사건 예고편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질병관리에 있어서 국가가 초기 대응을 잘 했다 혹은 못했다는 문제로 따질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생물체들의 반입이나 약물들의 반입은 검역기관들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잘 알려진 병원체들에 대한 방역들에 대해서나 테러 요인들에 대해서도 국가 간의 빅 데이터 정보 교환을 통해서 국가가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입 물건들이나 식품들 및 식물들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미세 생명체들의 반입이나 여행객들을 통한 알지 못한 병원체들의 반입은 인권이 크게 성장하고 시민의 자유가 극대화된 사회의 경우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국가의 인적 관리에 있어서 국민이 최고의 품위를 기대하는 곳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에 의해서 국가 전체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사건들이 터지는 일이 장기간 숨어 있다가 갑자기 드러나는 일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처럼 큰 피해 사건이 그 뒤에 함유되어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소소한 일들

이 큰 안목을 가지고 달려야 할 국가로부터 관리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책임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어떤 사건들이든 여론에 의해서 사건의 의미가 확대되어 국가나 개인의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우란 아마 현대 시대의 시물라이징의 시물라크르들이 큰 대중과 빅 데이터에 기초한 전체 조작성이나 초실재성의 생산으로 인한 전체 동체의 부각과 함께 책임론이 동시에 커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해야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사건으로부터 대 사건으로 발전이 되는 과정에도 인재로서 피해를 가능한 줄여야 할 집단이나 개인의 책임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 방식에 대한 오해나 관리는 인재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된다.

1980년 초부터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동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든 인간들 사이에 감염이 되든 가벼운 코감기의 원인자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공기 감염이 기본 학설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 바이러스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RS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등과 같이 대부분 호흡기관들의 세포들 안에서 증식하여 캡사이드 형태로 세포 밖으로 터져 나와 타액으로 모아져 있다가 기침 등을 통해서 미세 방울형태로 공기 중에 퍼지는 감염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감기 환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감염의 진원지라고 해야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의 경우 예외라는 주장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아의 탄생 전과 탄생 후 3개월 동안 산모의 면역성을 가지고 보호가 되지만 그 이후의 어린이의 경우 독립적인 면역력이 길러져야 그런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DNA 바이러스가 아닌 적은 수의 염기서열로 된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대략 80-220 nm의 캡사이드 안에 RNA들이 더 미세하게 모여져 있

을 뿐 환경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더라도 감염된 RNA는 우리 몸의 큰 세포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항상 증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거리가 2m이나 4m이나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 RNA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도 이미 비슷한 항체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거나 우리 세포 자체가 자아와 비-자아 사이를 구별하는 그 사회적 체계성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 증식을 위해서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혹은 들어오더라도 자신의 물질이 아닌 이 물질로 취급하여 우리 세포 내에서 소화시킬 정도로 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세포들이 계속 파괴되는 그런 큰 질병으로 발전되지 않고 가벼운 증세로 지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시간에 대해서도 쉽게 진단을 내리는 것도 의혹을 크게 할 수 있다. 처음에 그 증세가 가볍게 목 부위나 코에 간지러움 증후로 시작하여 훌쩍이고 그 빈도가 높아지며 코가 건조해 지고 코로 호흡하기 곤란해지는 첫 증세도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민들 스스로 초기 진단에 대해서 스스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움직이며 활동하되 그런 증세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하고 정리하여 가까운 병원의 의사의 상담을 받고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한다.

백박과 체온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석 간에 백박의 주기성의 성격이나 체온 변화 폭의 성격에 대해서 자가 진단하여 그 정보를 담당 의사에게 알려주면 검사 이전에 병의 원인들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초기 감염경로에 대한 차단이나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평소 시 모든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이런 지침을 지키면서 살 수는 없다.

더구나 새로운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 그것을 이기는 항체의 유형들이 아

직 발견이 되지 않고 그 치료약도 없으며 우리 몸이 미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가짜 단백질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알칼리성 물질에 의해서 쉽게 죽는 것을 이용하거나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쓰이는 ATP를 많이 생산하도록 물과 산소들의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의 세포들의 표면에 있는 프로톤 채널들이 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세포 안과 밖의 프로톤의 이동들과 그렇게 생성된 전기를 이용하여 ATP를 생산하고 있다. 그 에너지원인 ATP가 여러 곳에 이동하면서 직접적인 운동이나 열로 소모하여 ADP로 변하면서 세포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촉매기능들을 수행하며 그 면역체계도 유지한다.

국가는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관리나 세균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 개인이 전문적인 치료 이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원체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여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기기를 개발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맞춤형 치료약들의 개발을 위해서 근원적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태를 당하여도 다른 자연의 기적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부터 이런 인간의 근원적 대책들보다 더 근원적인 신적 대책을 세워 성취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 대책들이 없는 사회에 대해서 신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비판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책에 궁극적 희망을 걸고 힘을 잃고 좌절할 수 있는 이웃들을 돕는 최상의 방법들을 궁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 이해



박선원 목사
평화교회 담임

Ⅲ. 로마서에 나타난 성령 이해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고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성령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에 대한 고찰이다. 형용사적인 수식어로는 주로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롬 5:5). 성령은 명사적인 수식어와 함께 성령의 영 (롬 1:4), 생명의 성령 (롬 8:2), 하나님의 영 (롬 8:9), 그리스도의 영 (롬 8:9), 양자의 성령 (롬8:15)이라고 불린다. 둘째로 성령이 수식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고찰이다. 예를 들면 성령의 새로움 (롬 7:6), 성령의 생각 (롬8:6,27), 성령의 능력 (롬 15:13,19), 성령의 사랑 (롬 15:30) 등이다. 셋째로 성령과 함께 사용된 전치사에 대한 고찰이다. 성령과 함께 주로 사용되는 전치사는 세 가지이다: 그것은 “안에” (롬2:29) “말미암아”(롬5:5), “따라” (롬1:4)등이다.

1.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령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하시거나, 하나님 없이 활동하시지 않는다. 성령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며, 성령의 활동은 하나님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해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더 나아가서 성령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는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깊은 교통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며”, 성령은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신다(롬 8:27).

하나님은 성령의 사고를 인지하며, 성령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준 한다. 사도 바울은 고전 2:10에서 이러한 사상을 역으로 진술 한다: “성령은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성령께서는 일반적인 일들을 인식하실 뿐 만 아니라, 구속과 관련된 특별한 일까지도 인식한다. 성령의 인식은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에 미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인식하시기에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 정의한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롬 4:24). 정의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락된다(롬 4:24).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롬 8:11)이라고 불린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특히 예수를 부활시키는 일에 관여한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성령은 동역자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 신상에 놓듯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격 신상에 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나란히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롬 15:30). **박선원목사**

교회가 비전 제시하려면 자신의 성 깨뜨리고 변화돼야

김두현 목사의 이것이 목회 본질이다



김두현목사
21C목회연구소 소장,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변화되지 않으면 작동하던 기계가 멈추듯이 서버린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다 안다. 그래서 움직이는 DNA가 작동되도록 국가 기업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몸부림친다. 움직이지 않으면 버려지기 때문이다.

과거의 시계 소리와 오늘의 시계 소리는 정말 다르다.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속도도 점점 빠르다. 지구는 돌고 있고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의학 기술 학문 과학 예술 금융 스포츠 미디어 등의 발전과 혁신, 개발과 투자, 생산과 성장의 초고속화는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마



▲ 김두현 목사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3주 연속 금요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21C목회연구소

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대도시로, 광역 도시로, 그리고 세계 도시로 지역을 넘어 더 커지고 더 다양해지며 더 영향력을 갖추고 더 혁신적이며 더 세계화되고 더 빠르게 미래를 향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변화하지 않고 변화의 속도가 느린 곳이 한국교회다.

세계 교회는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의 진원지였고 중심 역할을 하며 국가와 도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번영을 이루는 데 이바지해왔다. 오늘날에도 미국 교회는 국가의 기반이

돼 있고 국민의 의식 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선제적이며 예방적으로 이끌어내 탈현대 시대의 상황 가운데 세계 교회들에 비전을 제시하며 21세기를 주도하고 있다.

나는 지난 글들을 통해 세계 교회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술해왔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안에만 매몰된, 닫힌 목회관을 벗어나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의 흐름은 전혀 미동

도 하지 않는 휴면 상태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21C목회연구소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소 이름을 놓고 많은 기도를 했었다. 1999년 설립 당시 ‘어떤 목회연구소를 세워야 할까’ 고민하며 여러 가지 이름을 떠올렸다. 당시 한국교회는 서서히 성장과 멈춤을 반복했다. 일종의 성장 데드크로스(dead cross·약세전환지표)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현실 분석과 대안을 찾는 연구를 했는데 제1 원인은 교회들이 21세기를 준비하고 예측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미래를 향해 가지 않으면 연료 공급이 차단돼 엔진이 멈추는 것은 시간문제임을 직시하고 연구소 이름을 21C목회연구소라고 지었다.

또 21세기에 살아 있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는 21세기에 맞는 목회 설교 훈련 모임 자료 리더십 매뉴얼 등을 터득하게 해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그리고 개방적으로 되도록 앞서 세워져 있던 기관들과 차별화된 신개념 체제의 연구소 출범한 것이다. 당시 만들었던 비전 선언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성

과 적합성을 인정받고 있다.

‘21C목회연구소는 실용목회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도와 이 땅에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연구소는 20년 전에 확립한 비전 선언대로 세계 교회의 중심 사역인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을 핵심으로, 오직 교회만이 희망이며 답이라는 성경적이며 검증된 사역을 통해 한국 유일의 목회연구소로서 명맥을 지키고 있다.

나는 20년 동안 하루에 5번씩 비전선언문을 기도하면서 외친다. 눈을 떴을 때,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마지막 잠들기 전 꿈속에서도 그 비전을 이뤄달라고 간구한다. 내가 이렇게 비전선언문을 매일 반복하는 이유는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연구소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다.

한국교회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바라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에너지와 동력을 상실한다. 비전선언문을 만드는 이유는 생각이 임태되는 과정을 통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선택해야 한다. 델러스 윌라드는 저서 ‘하나님의 모략’에서 “자신의 삶과 주변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본인의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들의 성을 깨뜨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해박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버릴 때 신선하고 깨끗한 비전으로 잉태된다. 변화의 최우선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마 16:18)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품고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교회 비전 선언문은 어떤가.



사설

부활은 역사의 반전이요 우리의 희망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모든 종교들은 죽음에서 의미를 찾지만 오직 기독교만은 부활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더구나 지금은(오늘날의 시대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나,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수 믿어서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는 시대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고 아무리 세련된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다 무익한 것이다. 기독교적 휴머니즘은 일종의 값싼 윤리적 유희를 즐기고 있는 것일 뿐이다. 성경은 어딜 보아도 부활을 증명하려 하거나 부활을 설명해 보려고 애쓴 흔적이 없다. 부활은 인간의 철학이나, 관념이아니, 지식이 아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사실이고... 우리의 부활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fact와 belief는 같은 게 아니다. 아무리 엄연한 사건이라도, 믿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사건화 되는 것이다. 우리 사실일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그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죽으셨을지라도 죽은 예수를 믿고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부활을 믿지 않고서도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

심자가에 관한 설교를 길게 전하고 나서 마지막 꼬리표를 붙이듯 부활 교리를 잠깐 언급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부활 교리도 심자가 교리와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복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부활 교리는 일년 내내 벽장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부활 주일에 단 한 차례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 부활은 초대 교회

가 계속하여 외친 승리의 찬 메시지 바로 부활이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기독교 최고 절기이다. 부활절을 가리키는 헬라어 ‘파스카’는 히브리어 ‘페사흐’의 음역인데, ‘페사흐’는 구약시대에 유월절을 뜻한다. 부활절을 성경에서는 부활을 의미하는 레저렉션 데이(Resurrection day)로 기록했지만 현대교회에서는 이스터(easter)라고 부르고 있다. 이스터는 원래 튜튼족과 앵글로색슨 등 게르만족이 봄의 여신으로 숭배하던 에오스트레(eostre)에서 파생된 단어다. 부활절 하면 달걀을 생각하는데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유래는 찾을 수 없다. 달걀의 등장은 다산과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부활절의 상징물로 자리잡았는데 성경적 절기문화와 상징들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활은 세상이 악이 끝났다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존재함을 외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역사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절망하고 있다. 이런 세상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거, 이런 나라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역사의 가장 부조리한 죽음을 삼켜 버리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기적을 바라며 희망을 가지고, 삶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복음의 승리는 믿는다. 우리는 교회의 승리를 믿는다.

뒤바뀐 세상



요즈음 시청자들을 뜨겁게 달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미스트 트로트이다.

요즘처럼 우울하고 답답한데 트로트를 통해 힐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승전에서는 시청자 투표가 700만 명이 훌쩍 넘게 투표에 참여했다. 그야말로 열풍이다. 노래 하나로 열풍을 몰고 온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엔 개미와 베짚이에 관한 동화에서 개미를 칭송했다. 산업화 시대에 열심히 일하는 만큼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다.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기대할 수가 없다. 요즈음 취준생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저도 요즘 젊은 목회자들

과 이야기를 하면 껌이 많음을 느낄 때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시대에 따라 교육을 다르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 생각에도 전환이 생긴다. 한국전쟁 후 우리가 못살 때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금은 개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지식과 정보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두 해결된다. 요즘은 판검사보다도 실력 있는 개그맨이 더 대우를 받는 게 사실이다.

감성과 창의력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으면 더 큰 대우를 받는다. 요즘은 판검사보다도 실력 있는 개그맨이 더 대우를 받는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만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

설동욱목사(예정교회 담임, 사단법인 로우 대표)

주필칼럼



박군상 목사
신석장로교회 담임
본지 주필

주님 저희는 지금 심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의 성전을 기념해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기고

1. 궁극적 절망-우상이 점령한 사회

한국 교회는 결국 절망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앞에 무기력을 넘어 교회의 뿌리가 흔들렸고 그동안 목사들이 무엇을 근거로 교회를 세웠는지 그 실상은 참담했다. 대형교회에서 소형교회까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동영상, 유튜브, 인터넷에 의존하며 예배를 드기 위해 공적 모임을 포기했다. 처음부터 교회들은 무방비로 대처했다. 좋으면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몇 주 지나면 좋아지겠지, 혹시 감염자라도 나오면 큰일 난다는 비겁한 태도가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교회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이 중요한 것이다. 평상시 목사가 처치 플랜팅을 지속적으로 했ాయ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미 세계 중심교회, 주류교회, 모델교회들이 30여년 가까이 모든 비전, 목표, 운동을 처치 플랜팅에 올인했다. 유독 한국교회만 이탈하여 텍스트도, 프레임도, 매뉴얼도 없이 자기 방식대로 허공을 향했다(고전9:26). 그리고 목사가 처치 플랜팅을 위해 성경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신학적 체계화의 교회로 훈련 받지 않고, 처치 플랜팅 전문기관을 통해 네트워크도 없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전통 목회에 매몰되어 시대적, 문화적, 상황적으로 아무런 대안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지성을 그대로 드러낸 민낯이 된 것이다.

이제는 정말 걱정이다. 그 엄청난 실수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앞으로 한국교회가 겪어야할 3가지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간구해야 한다.

첫째, 어떤 공격도 방해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와 예배를 포기한 것에 대한 목사의 책임이다.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전에 먼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쉽게 바꾼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잘못된 목사의 실수로 인한 교회의 본질 훼손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공동체와 예배자 이탈, 헌금 감소, 사역의 위축, 전도 범위 축소, 교회 권위와 신뢰 붕괴를 어떻게 예전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목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앞으로 겪게 될 무거운 하나님의 물음과 테스트를 감당해야 한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전적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 하나님은 결

이 땅을 고쳐 주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지으신 이 땅은 지금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으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땅을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되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오직 사망감 하나로 치료와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저들의 삶도 돌보아 주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힘을 자랑하던 강대국들의 무기력함을 보

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주권안에 있나이다. 주님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시민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더욱 더 교회가 정결하게 하시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나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한다고 항변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성숙한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게 하소서. 예배가 중단되고 안일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전 예

배를 더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전 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교단과 연합단체가 하나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고난에 대처하여 전화위복이 기회가 되게하여 주소서.

이 와중에 치려야 하는 총선도 무사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총선 이후도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 주소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60만 장정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앙은 속히 떠나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 부활로 이어지는 계절을 누리라는 이 땅이 되게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치 플랜팅/현교회의 정체성 붕괴

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교훈을 주시며 다시는 이번과 같이 처신하지 않도록 교회의 권위, 위상, 질서, 공의,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팀 켈러는 처치 플랜팅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이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지 교회는 중심center을 잃게 되면 집중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에 잘못 대처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 말씀을 중심,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흔들린 것이다. 거역지겹, 임기응변, 갈팡질팡 하다가 모두가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에서 프레임 교회frame church를 통해 신앙의 격과 틀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불안정한 달교회가 되버리는 것이다.

시대와 사람은 문화라는 우상idol이 지배한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출애굽기 20:3-6절 “3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어기는 것의 차이는 차마 비교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대체했다. 출 15: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왕상 2: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왕상 9:6-7절에 “6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상28: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와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상이 무엇인가? 가짜 신counterfeit gods이다. 하나님의 대용품이다. 우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만든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게 만드는 우상숭배 idolatry에 빠지도록 사탄과 마귀는 유혹한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 창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에 아심이나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간 것이다.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간단하다.

성경의 우상숭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인정과 위로와 안전을 자기 지혜와 능력이나 다른 피조물로부터 얻으려는 태도이다. 결국 사고와 마음과 애정이 어느 대상에 폭 빠져버리는 것이 우상숭배이다. 어떤 대상을 신적 존재로 삼고 절대화시켜 그것이 최고가 되게 한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는 문화이다.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TV, 영화, 쇼핑, 건강은 사람들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숭배 대상이 되고 말았다. 행복, 돈, 권력, 성공, 쾌락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걸 위해 모든 것을 인신제물로 바치듯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화에 걸린 사실도 모른다. 우상화는 결국 숭배, 복종, 종독에 걸리게 하여 파탄에 이르게 한다. 세상 문화는 교회마저 지배하여 결국 이 땅에서 교회가 존

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교회 가운데 세상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아 **목사들이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모든 열정, 에너지, 돈, 시간, 자원까지 쏟아 붓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골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속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공예배를 회복하여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우상화는 곧 신격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하여 신이 되어 깊이 빠지게 하는 것이 신격화deification이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존재감, 안전,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증폭시켜 점점 더 절실히 갈망하도록 우상으로 확대시킨다. **만일 온라인 예배, 동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다보면 마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계속해서 그런 예배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그것이 잘못된 예배관이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러야 한다.**

역사적으로 문화마다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했다. **지금도 우상이라는 가짜 신은 교회를 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꾀박을 하고 무너지도록 악랄한 짓들을 한다.** **국가 지도자나 시장, 도지사, 정치인, 방송인, 자칭 지식인이라는 교수까지 동원되고 국민의 소리라고 하면서 교회가 확장되고 더욱 복음전도 운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도록 사탄과 마귀의 역할을 하며 교회 말살을 통해 교회 파탄을 꾀꾼다.** 그러나 교회는 마데복음 16:18절에 어떤 악의 세력도 교회를 패배시키지 못한다. 현 국가가 교회를 공격과 파괴 공작을 벌려도 더욱 강력하게 교회를 주님은 불드신다. 믿음이 승리케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요일5: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면 무너진다. **2020년 한국교회가 반도막 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골2:15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심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교회의 원칙, 규범,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제는 모든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를 우상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교회, 가정, 일터 회복을 위한 77 비상 공동체

Job, Home & Church Planting (4월 19일 ~ 7월 5일)

주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자!

1. 왜 우리는 77 비상 공동체를 해야 하는가? 직업

자유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국가, 교회,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 전체가 우한 토로나 19 전염병 재앙으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우려는 정부로부터의 교회 탄압과 교회의 분열, 무분별하게 실시한 미디어 온라인 예배,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 훼손은 결국 큰 상처와 아픔으로 2020년 후반기에 더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예측되기에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일하심을 영적 관점으로 살피며 모두가 하나, 되어 그동안 나도 모르게 영과 육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과 자만과 우월감을 버리고 77일 동안 회개, 겸손,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는 비상한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 진단하기

① 세상, 문화, 시대를 따르지 말고 도전, 변화, 혁신의 신앙관으로 다시 서자.
② 영적 생활, 교회적 태만, 냉담, 방치로 인한 사고, 습관, 체질을 버리고 일어서자.
③ 영적 건강을 해치는 육체, 사단의 계략, 죄악을 이겨내고 기도, 예배, 훈련으로 다시 서자.

2. 왜 오늘 4월 19일 선포식이 중요한가?

2020년,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공적 사역인 예배, 목회, 기도, 전도, 심방은 물론 직분과 역할, 헌신과 봉사, 집회와 훈련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전 반기 6개월 교회 사역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136년 만에 최악의 극단적 상황을 맞았으며을 하반기는 이 여파로 인하여 더욱더 안과 밖으로 안 좋은 교회 현실이 될 것이란 예측이 되기에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비상체제를 통해서라도 교회, 가정, 일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태를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①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예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② 이미 사도들이 온갖 어려움과 핍박에서도 이겨냈던 사도행전교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한다.
③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중심, 예배 중심으로 믿음의 기본을 튼튼하게 다시 세운다.

*우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서 위 3가지 주제를 선포한다.

3. 어떻게 77 비상 공동체를 진행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동안 해오던 말씀을 단순, 반복, 지속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불평하거나 다른 의견을 낼 때가 아니라 이렇게 실천하며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한 실천과 신앙점검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 주기도, 사도신경의 의미를 다시 배우다.
② 나의 가정, 교회, 일터 회복을 위하여 77일간 정해진 시간(본인이 정한다)에 기도한다.
③ 나의 믿음이 행함과 헌신으로 본이 되는지 날마다 점검한다.
(100점 만점에 오늘 나의 믿음과 실천 지수는 ____점인가?)

4. 주제 성구를 외우십시오. 또한 그 배경 해설을 알고 있는가?
*시편80:7 만군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삽-레위 지파 게르솜 자손 헤만의 형제 베레아의 아들(대상6:39, 43).
다윗 왕 때에 여호와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3조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그는 헤만, 에단과 더불어 지휘자였다. 그들은 여호와와의 궤를 오벰에돔에서 예루살렘(다윗 성)으로 옮길 때 궤 앞에서 악기를 울려 즐겁게 하기 위해 레위 사람 중에서 선발되어(대상 15:16-19) 그 후 그 직분이 고정되었고 그 직분이 계승되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다 놓고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는데, 이 봉사의 두목으로 아삽이 임명되었다(대상16:4-6). 그리고 아삽과 그 형제들은 여호와와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도록 선정되었다(대상16:37).

그 후 다윗은 악대를 24반으로 편성할 때, 아삽은 여두둔, 헤만과 더불어 악대 총 지휘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불렀고, 여두둔은 그 아들과 같이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불러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대상 25:2-8, 대하35:15).
시편 중 12편의 시(시 50,73-83편)가 아삽의 작품이다(대하 29:30). 이렇게 아삽은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선견자라고 불리웠다(대하29:30→35:15, 대상 25:5). 기도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으로 무장한 아삽은 다윗 왕을 위한 동역자가 되었듯이 이 시대에도 아삽과 같은 동반자가 우리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도 필요한 시대이다.

아삽과 같은 동역자요 동반자가 되기 위한 다짐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가정, 교회, 일터회복 77비상 공동체를 위하여 아삽처럼 신령한 찬송을 부르자.
② 우리(나)는 말씀행진, 기도행진, 회복행진으로 77비상 공동체를 위해 선견자의 역할을 하자. ③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어둠과 대적의 세력, 재앙, 교회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승리하자.

5. 반드시 알고, 모이기 힘써야 할 사역은 무엇인가?

① 4월 19일 77비상 공동체 선포식
▶구호3번 선언 :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자!
▶구호3번 주제말씀 1번 낭독 : 시 80:7 만군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합심통성기도 : 1분 실시.

② 5월 흠 플랜팅
첫째 주: 어린이 주일 (3일) 둘째 주:

아버이 주일 (10일) 셋째 주: 선생님 주일 (17일)
넷째 주: 목회자 주일 (24일) 다섯째 주일: 한마음 주일 (31일)
③ 6월 처치 플랜팅 오순절 축제 - 7일, 14일, 21일, 28일
④ 7월 5일 맥추절, 교회사랑주일-교회 사랑 첫 감사예배 준비 (2배 부흥 전도 선포 주일)

6. 77 비상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종교인에서 복음인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충성된 사역자로 세워져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굳게 지키며 복된 일터가 되도록 믿음의 길을 걷는 제자도, 행함자, 플랜터로 심고 물주고 자라게 하자(고전3:3). 제자도, 행함자, 플랜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제자도 discipleship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와 그 내용. 특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16:24)고 명령하셨다. 예수를 좇는 일이 고난의 길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임임을 가르치신 것이다(막8:34-35, 10:28, 눅 14:27).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우선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 할 것(마6:33)과 복음 전파를 통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마28:19), 그리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마5:13-16), 이웃에게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다(마5:43-48, 19:19-21, 20:28).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보다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심하다.

② 행함자 doer란 무엇인가?

약1:22-25, 27 22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 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형식적이고 편리주의, 개인주의를 과감하게 버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철저한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전투신앙(전신갑주로 무장 엡6:11), 승리신앙을 위하여 77일 동안 비상한 각오와 뼈를 깎는 결단으로 임해야 우리는 해낼 수 있다.

③ 심는 자 planter란 무엇인가?

플랜터란 심는 자를 의미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심는 자이다. 땅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주님이 깊어가시고 사도들이 실천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가 되는 것이다. 이 길은 마치 요12:24절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자신은 죽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만, 자만,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 겸비, 배려를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별지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주 말씀 별지를 받아 정기적으로 읽고 답을 작성한다.
둘째, 성경을 펴고 구절들을 찾아 형관 펜으로 줄을 친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하여 고칠 것을 찾아낸다.
넷째, 77일간 말씀들을 주중에 가정과 일터에서 나눈다.
다섯째, 기도와 성령으로 변화 받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낸다.

7.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지막 날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

77비상 공동체는 비상시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날아오르는 의미도 포함된다.
지금 국가, 교회, 가정, 일터가 위기이다. 그렇다고 걱정하고 정부만 바라보던지 몇 푼 돈 벌는 것이나 의지하려는 후진국(이런 모습을 사회주의에서는 개, 돼지에 비유한다. 왜?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이다.) 사고와 성경에 반하는 사회주의식 사고를 버려야 한다.
특히 교회들은 정신 차리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해오던 나태, 안일, 게으름, 부정,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비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 뜨리는 과오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사탄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주의 일을 막으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세와 태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말씀과 진리로 이겨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가장 먼저 77일 동안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엡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② 무엇보다도 겁내거나 비겁하지 말고 모이는데 힘써야 한다.

(히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③ 서로 지킬 것을 지키고 품격 있는 인성과 신앙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전14: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④ 목회자를 중심으로 함께하고 함께 승리하는 전투를 해야 한다.

(출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⑤ 7월 5일을 가장 최고의 결실과 축복의 날이 되도록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시37:5-6 5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교회와 우리는 모두,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축복하면 지금의 위기와 재앙을 더욱 빨리 이기고 하나님 일 일하셨음을 두 눈과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쁘게 해낼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 부르짖을 때 하늘의 신령한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Acts29교회를 세울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Amen.

*시80:7 만군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민6:24-26 여호와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1세기 개혁신학의 요람 총회신학원 입학요강

2020학년도 전기 특별장학생 및 신·편입생모집

■ 모집과정 및 자격

모집학과	모집과정	인원	구분	전형방법
학부과정	신학사(Th.B.)과정 신입	00명	주/야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자
	신학석사(Th.M)과정 신입	00명	주/야	M.Div 과정 졸업자
대학원과정	목회학석사(M.Div)과정 신입	00명	주/야	학사학위 소지자 동등 자격자(정규신학졸업)
Reformed University (미국연방정부인가)	신학석사(Th.M) 신학박사(Th.D.)	00명	주/야	공동학위, 펠로강 참조
특수반 - 강해설교반	강해설교, 설교작성, 설교전달을 집중강의하는 과정			
- 영어설교반	해외사역과 전문영어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 영어구조, 전달 등을 교육하는 과정			
- 편목과정	본 교단에 가입하거나 목회자들이 정회원이 되기 위한 특별교육과정			

■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접수
나. 전형방법 : ① 서류 ② 면접
다. 전형일자 : 상시모집
라. 전형료 : 30,000원(원서대 무료)
마.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재양식) - 1부 (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동등 자격자는 해당 증명서 - 각 1부 (학부과정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또는 동등 자격증명서(검정고시합격))
3) 당회장 또는 노회장 추천서 - 1부
4) 주민등록본 - 1통
5) 반명함판사진(원서부착포함) - 3매

■ 특전

입학생 전원 : 매학기 등록금(이사장학금) 50% 지원

- 장학혜택
제학 성적우수자 : 제학기간 등록금 전액 면제, 봉사자, 목가자 등에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수석졸업자 해외유학시 등록금 전액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구원 (M.Div)졸업자는 대신총회신학교와 연계된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미국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유학을 추천하면 유학기간 중 규정된 장학금을 지급함.
- 본교 졸업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진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사역할 수 있음.
- 미국 Reformed University(미 연방정부 인가대학)와 연계하여 학위과정 이수한 자에게는 미국 유학을 도와주며 유수한 신학교에 추천하여 등록금을 지원함.
- 본 신학원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통해 졸업 후 목회현장에서 성경강해와 실천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계절학기(여름, 겨울)를 운영함으로써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 입학문의 : 010-5370-5944 / 010-9736-7179

http://www.dsi961.com
(04303) 서울특별시 용인구 청파로 73길 58(청파동) 청파중앙교회(02-702-0041)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진)총회 총회신학원

이사장 전광훈목사
총회장 강대석목사
학 장 김향주목사



2020년 5월 2일(토) 오전 11시 청파중앙교회 내 총회신학교 대강당

매주 강의, 월요일은 저녁반, 토요일은 전일강의, 필요시 스마트강의(영상강의)